

* 설문조사 추가자료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김윤호(아시아연구소)

<요약>

오늘날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리고 지오컬처(Geo-culture)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명의 흐름이 '해가 뜨는 땅'으로서의 아시아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로 아시아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바,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아시아의 장래를 진단해본다.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아시아인이다”라는 답변이 92.2%, “나는 세계인이다”라는 답변이 78.5%이다.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신흥국과 저개발국”(27.7%), “거대인구(14.0%)”, “신흥경제·수출시장”(12.7%), “다양한 식문화”(12.2%), “인기 관광지”(7.8%) 순을 보였다. EU와 비슷한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44.0%가 동의했으며, 지역공동체 결성 가능성에 대해 35.6%가 “잘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결성이 가능한 주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50.9%)”, “지리적으로 가깝다(19.3%)”, “같은 동양인(15.3%)”,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11.3%)” 순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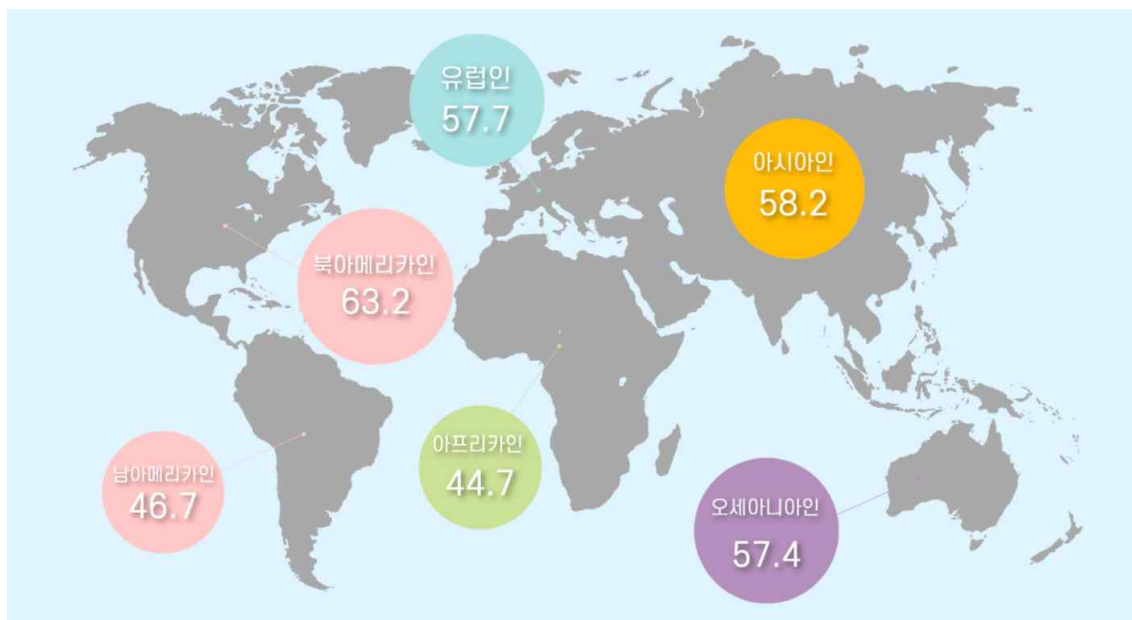
조사 개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는 2021년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들은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에 버금가는 아시아 정체성을 점차 형성하고 있는지, 한국인들의 아시아 이미지는 어떠한지, 아시아 문화 경험은 어떠한지, 아시아 지역이나 국가별로 호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아의 주요 외교 현안을 포함한 주요 이슈를 무엇으로 보는지, 아시아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등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한다.

아시아지역 선호도 및 정체성

한국인이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높을수록 호감)로 표시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북아메리카인(미국, 캐나다) 63.2°C, 아시아인 58.2°C, 유럽인 57.7°C,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 57.4°C, 라틴아메리카인(중남미)가 46.7°C, 아프리카인 44.7°C 순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시했다. 한국인은 북아메리카인 다음으로 아시아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아시아인에 대해 젊은층(19~29세)가 60.6°C로서,

60세 이상 58.9°C보다 약간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보다 대재 이상이 높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아시아 국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1~3°C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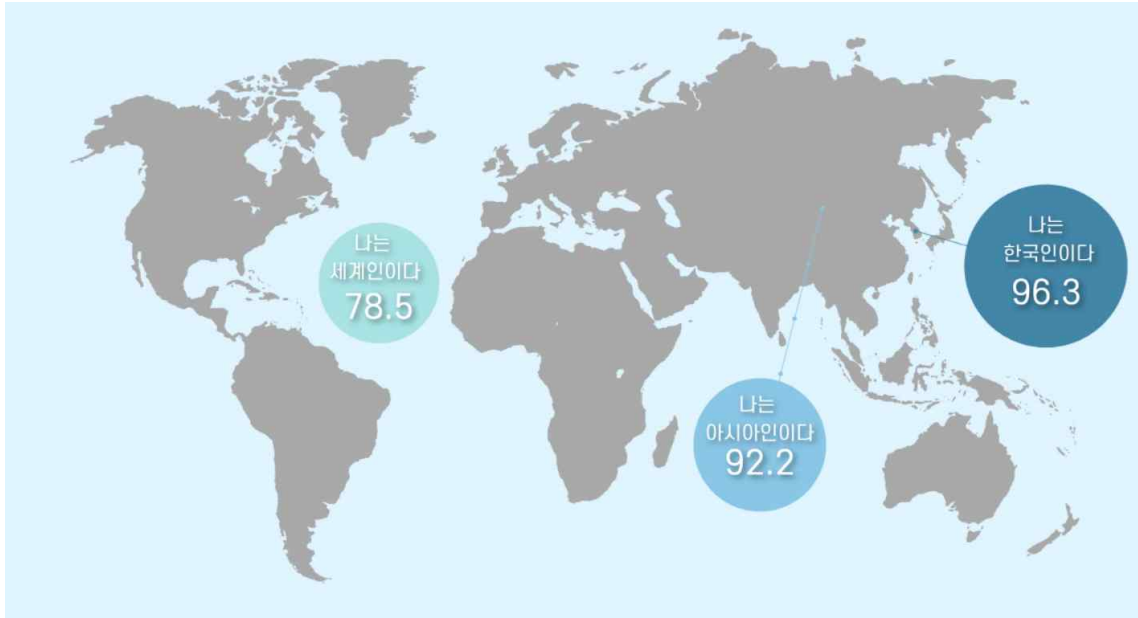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전 세계 호감도(대륙별)

주) 원 안의 숫자(°C)는 각 대륙 사람들에 대해 한국인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한다.

아시아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결과, 동북아시아인 57.1°C, 동남아시아 53.7°C, 중앙아시아 47.9°C, 남아시아인 45.7°C, 서아시아인 43.3°C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동북아인(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대만, 몽골, 홍콩)에 가장 높은 호감도를 표시하였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인에 대한 호감도가 남자 58.6°C로서 여자 55.5°C보다 높았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호감도가 높은 것은 타 지역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어본 결과,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문장에 96.3%가 동의했으며, “나는 아시아인이다”라는 문장에 92.2%, “나는 세계인이다”라는 문장에 78.5%가 동의하였다. “나는 한국인이다”에 남자 94.4%, 여자 98.2%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높았으며, “나는 아시아인이다”, “나는 세계인이다”에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으로 보면 “나는 한국인이다”에서 진보 98.8%, 보수 95.7%를 보였으며, “나는 아시아인이다”에서 진보 97.4%, 보수 91.9%를 보였다. “나는 세계인이다”에서 진보 86.9%, 보수 73.4%로서, 진보 성향의 세계인으로서의 인식이 보수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한국인,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의 인식

주) 원 안의 숫자는 0에서 100을 척도로,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아시아인/세계인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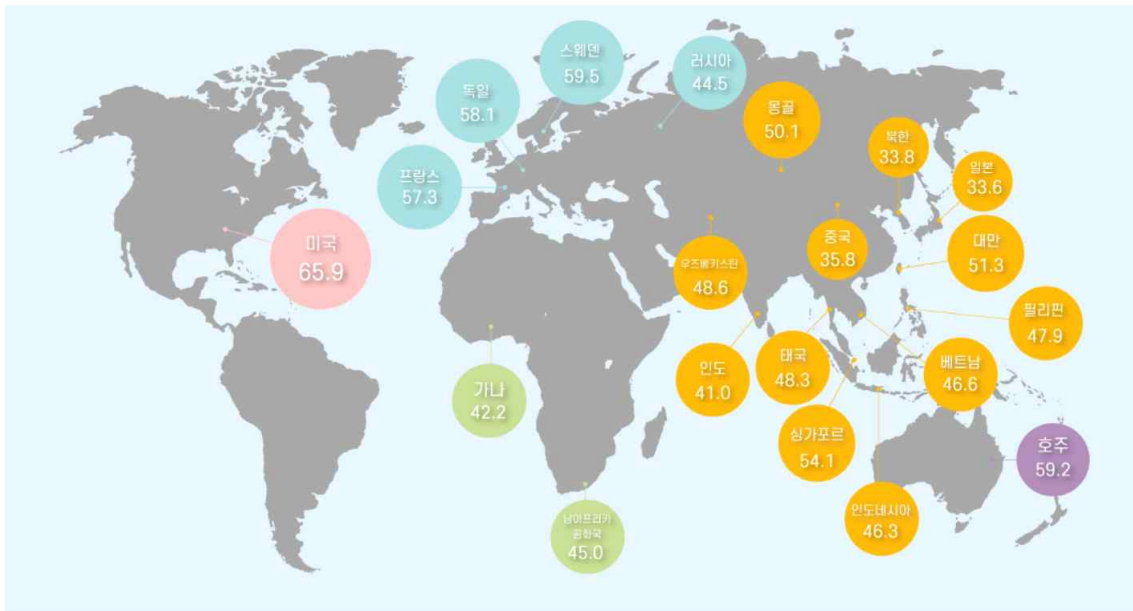
아시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묻은 결과, “신흥국과 저개발국” 27.7%, “거대인구” 14.0%, “신흥경제·수출시장” 12.7%, “다양한 식문화” 12.2%, “인기 관광지” 7.8%, “환경오염” 6.7%, “종교갈등” 6.5%, “전통축제” 5.3%, “군부독재/쿠데타” 5.1%, “거대도시” 1.7%, “기타” 0.3%의 순을 보였다. 설문대상의 남자 28.3%, 여자 27.2%가 아시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로서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선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이하 22.6%, 700만원 이상 32.4%로서, 비교적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으로 보면 ‘신흥국과 저개발국’에 대해 진보 34.1%, 중도 26.1%, 보수 25.6%로서 진보 성향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60.9%로서, “반대한다” 2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인은 대외 원조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더 많은 대외원조에 찬성한다” 항목을 남자 68.5%, 여자 53.5%가 선택하여, 남자가 여성보다 15%p 높은 대외원조 선호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찬성하는 비율이 진보 성향이 76.5%로서 보수 성향의 57.9%보다 높았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호도

한국인이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호감도)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미국 65.9°C로서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응답자 통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남자 68.4°C, 여자

63.4°C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비슷한 호감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65.9°C, 중도 62.6°C, 보수 70.8°C로서 보수 성향이 미국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65.9°C, 스웨덴 59.5°C, 호주 59.2°C, 독일 58.1°C, 프랑스 57.3°C, 싱가포르 54.1°C, 대만 51.3°C, 몽골 50.1°C, 우즈베키스탄 48.6°C, 태국 48.3°C, 필리핀 47.9°C, 베트남 46.6°C, 인도네시아 46.3°C, 남아프리카공화국 45.0°C, 러시아 44.5°C, 가나 42.2°C, 인도 41.0°C, 중국 35.8°C, 북한 33.8°C, 일본 33.6°C 순이다. 조사대상 20개국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54.1°C를 보였으며, 이어 대만 51.3°C를 보였다. 중국 35.8°C, 북한 33.8°C, 일본 33.6°C가 하위권을 보였다.



<그림 3> 한국인의 전 세계 20개 주요국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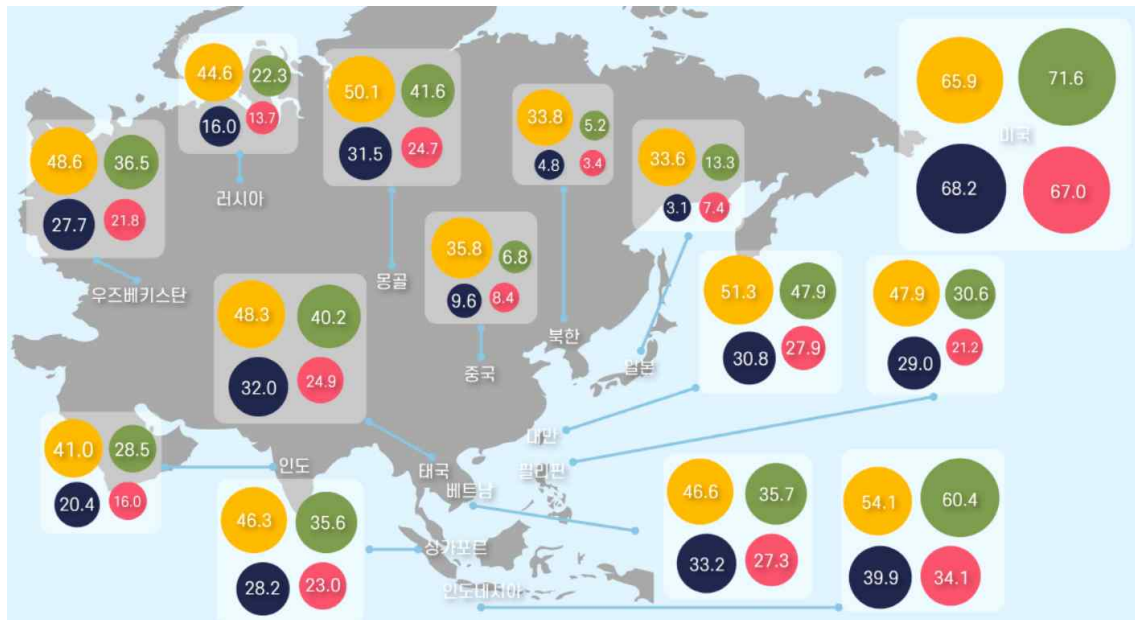
응답자 통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남자 35.5°C, 여자 31.8°C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호감도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37.8°C, 30대 28.6°C, 40대 29.4°C, 50대 33.1°C, 60대 이상 36.6°C로서 30~40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29.5°C, 중도 30.7°C, 보수 41.9°C로서 보수 성향이 일본에 대해 다소 높은 호감도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남자 36.5°C, 여자 35.2°C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호감도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25.5°C, 30대 29.6°C, 40대 33.5°C, 50대 39.8°C, 60대 이상 42.5°C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호감도가 높아졌다.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38.5°C, 중도 34.1°C, 보수 35.7°C로서 진보 성향이 중국에 대해 다소 높은 호감도 수치를 보였다.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에 비해 미국,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 성향은 보수 성향에 비해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 신뢰도, 좋은 관계 정도, 영향력 등 3가지 측면에서 물어보았다. “다음 국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와 “대체로 신뢰한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미국 71.6%, 중국 6.8%, 일본 13.3%였으며, “다음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은 관계이다”와 “대체로 좋은 관계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미국 68.2%, 중국 9.6%, 일본 3.1%였다. “다음

국가들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매우+대체로)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미국 67.0%, 중국 8.4%, 일본 7.4%를 보였다. 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 인지도(호감도)를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은 호감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력 모두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에서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1순위)는 미국 69.2%, 중국 6.9%, 북한 6.5%, 인도 1.8%, 일본 1.1% 순서를 보였으며, ‘1+2+3순위’ 합계를 보면 미국 84.5%, 중국 43.5%, 일본 28.2%, 북한 25%이다. 이에 비해 한국이 경계해야 할 나라는 북한 32.8%, 중국 29.1%, 일본 26.7%, 미국 4.5% 순을 보였다.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1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대만, 몽골, 필리핀)의 선호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를 살펴보면 <그림 4>과 같다. 선호도, 신뢰도, 관계도와 영향도를 전반적으로 볼 때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에 일본, 중국, 북한 등 인접국의 경우 오히려 수치들이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아시아 주요 국가별 4개의 인덱스: 선호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

주)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를 나타낸다. 선호도는 설문 대상이 0에서 100을 척도로 각 국가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정도에 평균을 낸 값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각 국가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와 “대체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관계도는 각 국가와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좋은 관계이다”와 “대체로 좋은 관계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도는 각 국가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 선호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는 각각 주홍색, 초록색, 파란색, 회색으로 표기되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별 4개의 인덱스(선호도, 신뢰도, 관계도, 영향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4개 인덱스의 평균 값은 32.48이며, 그중에서 남자는 35.86, 여자는 29.15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6.69 크다. 특히 관계성, 긍정도 인덱스에서 남자와 여자간의 격차가 컸다. 연령별로 본 평균값은 20대 29.62, 30대 29.59, 40대 28.07, 50대

33.55, 60대 이상 37.61로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념성향으로 본 평균 값은 진보 49.08, 중도 30.32, 보수 32.96, 모름 20.35로서 진보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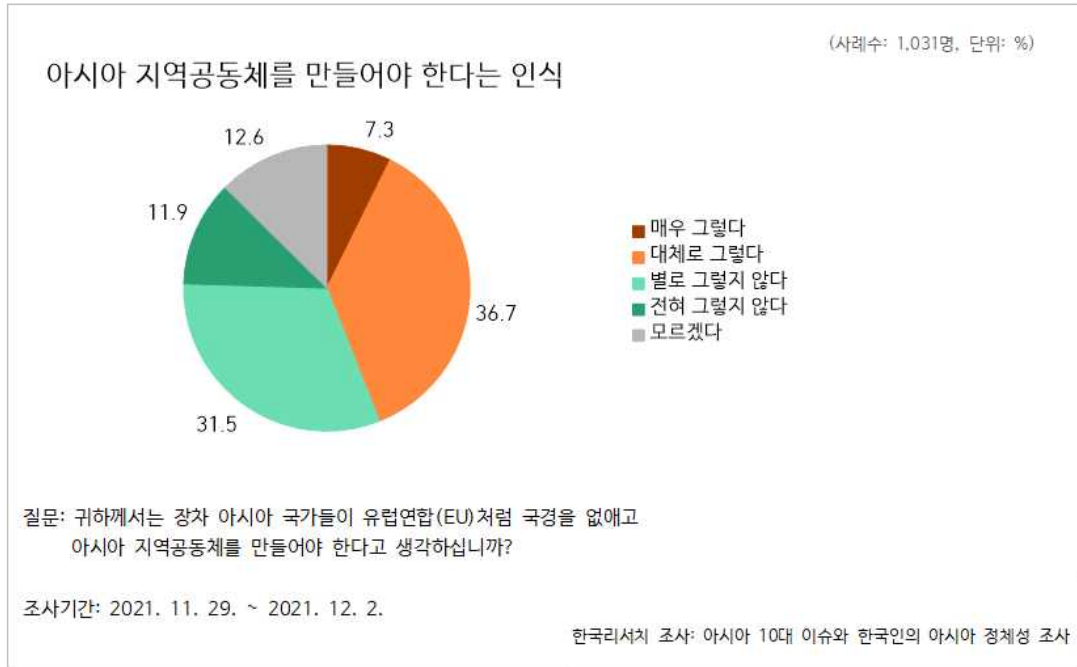
<표 1>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의 4개 인덱스(평균)

	사례수 (명)	신뢰도 (평균)	관계성 (평균)	긍정도 (평균)	호감도 (평균)	소계 평균
▣ 전체 ▣	(1,031)	34.01	26.74	22.91	46.27	32.48
성별						
남자	(510)	37.39	31.07	27.58	47.40	35.86
여자	(521)	30.71	22.49	18.34	45.12	29.17
연령						
19-29세	(170)	31.88	23.21	17.53	45.86	29.62
30-39세	(160)	29.77	23.81	19.84	44.94	29.59
40-49세	(194)	25.99	24.29	18.98	43.00	28.07
50-59세	(202)	35.97	27.04	24.13	47.06	33.55
60세 이상	(305)	41.25	31.59	29.19	48.41	37.61
이념성향(11점)						
진보(0-4)	(266)	54.48	49.72	44.29	47.82	49.08
중도(5)	(441)	31.57	24.74	20.99	43.99	30.32
보수(6-10)	(280)	35.36	25.57	23.04	47.87	32.96
모름	(43)	17.01	8.14	7.32	48.91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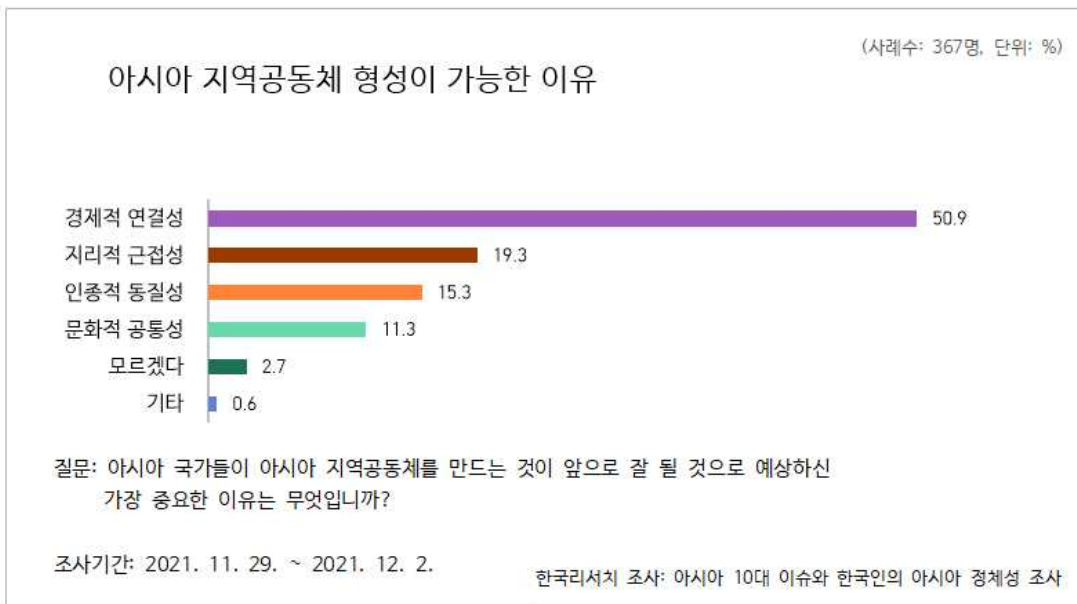
아시아의 장래

장차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처럼 국경을 없애고 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44.0%, 그렇지 않다 43.4%는 비슷한 찬반 견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동의 의견이 남자 48.8%, 여자 39.2%로서 남성이 10%p가량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8%, 30대 41%, 40대 43.2%, 50대 47.5%, 60세 이상 50.7%로서 60세 이상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 55.6%, 중도 42.9%, 보수 38.1%를 보였다.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 가능성에 대해 “잘 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35.6%, “잘 안될 것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64.4%로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이 가능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0.9%, “지리적으로 가깝다” 19.3%, “인종적으로 가깝다” 15.3%,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 11.3% 순을 보였다. 반면,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이 가능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나라 간 영토/역사분쟁이 심하다” 32.1%, “경제 수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30.9%,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체제가 다르다” 19.3%, “나라별 민족성이 다르다 13.9%” 순을 보였다.



<그림 5> 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그림 6>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한 이유

아시아의 문화 경험

한국인의 아시아 문화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예” 61.1%, “아니오” 38.9%로서 절반 이상이 해외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 여자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서 둘을 비교할 때, 여성 표본에서 해외여행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7%p 가량 높았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 여행 횟수는 “간 적이 없다” 6.1%, “1-2회” 54.9%, “3-5회” 30.0%, “6-10회” 4.4%, “10회 이상” 4.5%로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1~5회 정도의 해외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10회 이상 아시아 여행을 한 비율은 남자 5.9%, 여자 3.3%로서 남성 표본의 응답율이 2.6%p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2.6%, 30대 3.4%, 40대 7.4%, 50대 3.9%, 60대 이상 4.8%를 보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경험은 7.9%이다. 남자 11.1%, 여자 4.7%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9.6%, 30대 13.1%, 40대 10.1%, 50대 5.1%, 60대 이상 4.5%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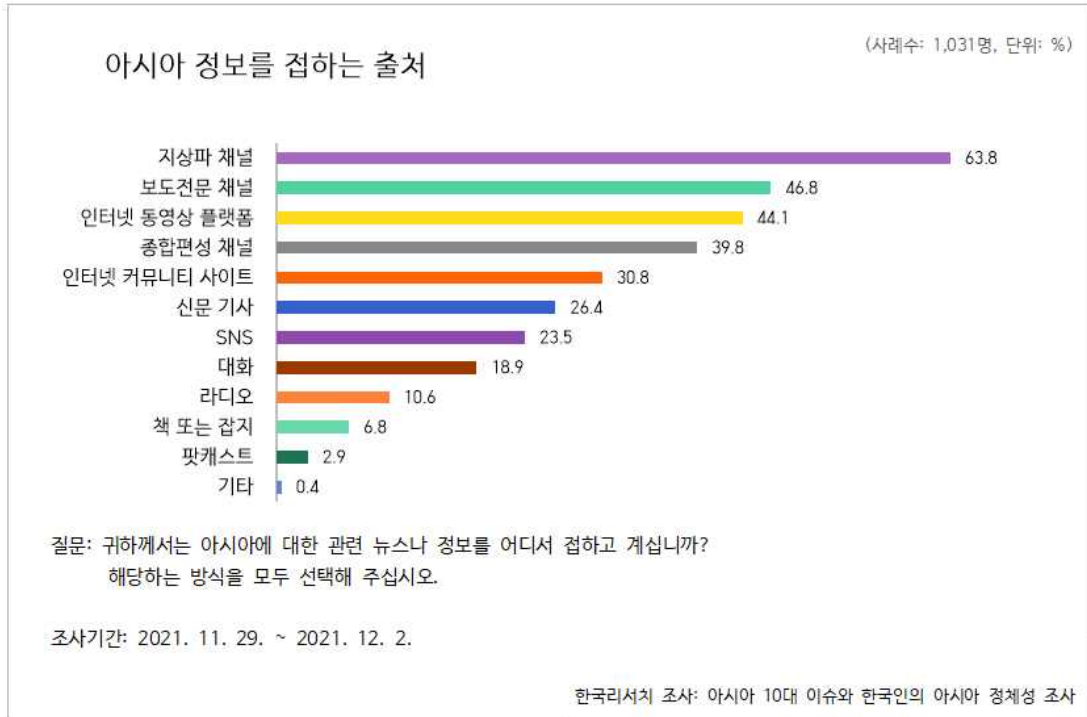
해외 장기체류 목적은 “배낭여행, 한해 살기 등 여행 및 휴식” 31.2%, “주재원, 해외공관 근무 등 업무” 27.7%, “어학연수, 학위취득 등 학업” 23.5%, “결혼, 친척 방문 등 가족 관련 이유” 13.4%, “기타” 16.3%이다. 관광여행과 업무 출장을 포함하여 체류 경험이 있는 국가의 비율은 일본이 39.5%, 중국이 30.7%, 대만이 13.5%, 홍콩이 12.1%였다.

한편, 아시아 국가의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 경험을 물어본 결과, “경험해 본 적이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74.9%,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19.7%이다. 아시아 국가의 가장 많이 시청한 영상물을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일본 28.8%, 중국 25.9%, 미국 15.6%, 한국 12.2%로서, 일본이 가장 많았다. 일본의 경우, 성별로 보면 남자 33.2%, 여자 24.5%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45.6%, 30대 40.8%, 40대 28.2%, 50대 19.2%, 60대 이상 14.5%를 보였다. 20~30대 젊은 층이 일본에 대해 문화적으로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맛집 방문 경험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56.3%(자주, 여러 번, 한두 번 포함)이었으며, “경험 없다” 34.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시아 국가 맛집 방문 경험: 가장 많이 방문한 맛집은 어느 나라의 맛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베트남 29.9%, 일본 25.9%, 중국 15.2%, 태국 13.9%, 인도 6.3% 순을 보였다. 지난 3년간 아시아 국가의 음악 감상 경험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44.4%(자주, 여러 번, 한두 번 포함)이며, 가장 많이 청취한 음악은 일본 37.3%, 중국 18.2%, 미국 11.3%이다. 일본의 경우, 성별로 보면 남자 37.8%, 여자 36.8%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55.6%, 30대 50.7%, 40대 38.2%, 50대 30.1%, 60대 이상 18.3%를 보였다. 일본의 문화 경험 중 음악 37.3%, 영상물 28.2%, 맛집 25.9% 순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인 및 일본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는 낮은 편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경험은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시아 관련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소스를 물어본 결과, 지상파 채널(KBS, MBC, SBS 등) 63.8%, 보도전문 채널(YTN, 연합뉴스TV 등) 46.8%,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등)의 개인 방송 44.1%, 종합편성 채널(JTBC, TV조선 등) 39.8%,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30.8%, 신문 기사(종이신문과 인터넷 기사 포함) 26.4%,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23.5%, 가족/친구/이웃/지인과의 대화 18.9%, 라디오 10.6%, 책이나 잡지 6.8%, 팟캐스트 2.9%, 기타 0.4%순이다. 성별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해 비해 지상파채널, 인터넷 동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정보 수용을 선호한데 비해, 여성은 가족/친지/이웃/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아시아 정보 입수를 선호했다.



<그림 7> 아시아 정보를 접하는 출처

결론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높은 편이지만, 아시아 지역공동체 결성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신흥국과 저개발국, 거대인구, 신흥경제·수출시장”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여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한국과 아시아인 간의 지속적인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인식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미국 및 미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아시아에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중국, 일본의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상황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지만, 일본 음악이나 맛집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 더 나아가 3자 간 정치·사회적 긴장 관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아시아 진출, 아시아인의 한국 진출, 아시아의 장래 등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설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아시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 발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1년 10월 기준 전국 70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31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협조)율	· 조사요청 8,279명, 조사참여 1,413명, 조사완료 1,031명 (요청대비 12.5%, 참여대비 73.0%)
조사일시	· 2021년 11월 29일 ~ 12월 2일
조사대행	· (주)한국리서치

Tag:한국인,아시아인식,정체성,아시아지역공동체,설문조사

김윤호(kic555@snu.ac.kr)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시아 브리프 편집위원

주요 저서: 『BoP(저소득층) 비즈니스 블루오션』 (한국학술정보, 2018)

『팝라이프』 (역저),(이담북스, 2018)

『팝랩과 팝시티』 (한국학술정보, 2017)

『인터넷창업경영』 (공저),(청람, 2016)